



IBKS Spot Comment

IT/디스플레이

강민구

02) 6915-5473

kmg@ibks.com

[IT/디스플레이]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패널 비즈니스

What's New:

주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유리 기반 첨단 패키지 및 광 인터커넥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는 Set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만 대표 LCD 제조사인 AUO의 주가는 연초 대비 128.2% 상승했고, 중화권 1위 패널사인 BOE는 32.2% 상승한 주가를 기록했다. 두 회사의 주가를 견인한 요소는 AI Chip Packaging 및 네트워크 하드웨어 시장 진출 기대감이다. BOE는 Corning과 유리기판, 광통신, 패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의 협업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고, AUO는 Micro LED 생산 경험과 그룹 내 계열사 시너지를 기반으로 광통신 모듈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두 기업은 광원부터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CPO 통합 사업자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nalysis:

패널사들의 신사업 진출 배경에는 <Set 불황>과 <기술적 공통점>이 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SmartPhone, Tablet PC 등 Set 시장을 위축시켰고, 중저가 패널 출하 감소로 이어졌다. 2026년 SmartPhone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0.8억대 수준으로 전망하며, Tablet PC, Notebook 시장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중화권 패널사들의 실적은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메모리발 Set 출하량 감소는 패널 비즈니스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디스플레이와 광통신 제품의 공정 유사성 역시 신사업 진출의 동인이다. 최근 광통신 시장은 유리가 갖는 전기적, 광학적 특성에 주목해 유리기판 기반의 PLC(Planar Lightwave Circuit), Glass Interposer 등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패널 제조사는 대형 유리기판에서 증착, 노광, 식각 등의 공정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해 제조 책임자로 평가받는다.

So What?:

발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한 중화권 업체와 국내 패널사간의 가장 큰 차이는 본업에서의 점유율과 가동률이다. 국내 양 패널사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IT OLED 등에서 글로벌 최대 Set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반면, BOE는 매년 LTPO TFT 수출 문제가 발생해 패널 품질 면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고, AUO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6세대 OLED 패널 양산이 무산되며 LCD 비즈니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배구조와 그룹 내 사업영역도 차이가 있다. BOE의 경우 상장사 아래 지역 Fab을 자회사로 두어 신사업을 전담시키지만, 국내 패널사는 종속회사, 관계사의 형태로 그룹에 포함되어 계열사간 사업영역 조정이 보다 민감하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